Thorens TEP 302

토렌스의 명성을 그대로 물려받다

필자의 포노와 자웅을 겨룬다면 고역과 이미징은 필자의 포노가 앞서고 저역과 무대의 크기는 토렌스의 포노가 앞섰다. 필자 포노와 자웅을 겨룰 정도의 포노라면 근래에는 서덜랜드의 PHD 정도였는데 토렌스의 TEP 302도 당당히 그 리스트에 낄 자격이 충분했다.

최윤욱 | 오디오 평론가

아날로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를 들라면 혹자는 린을 꼽을 것이고, 가라드를 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EMT를 꼽는 애호가도 있을 것이다. 유명한 여러 브랜드들이 등장하겠지만 단 하나만 꼽으라면 가장 많은 추천을 받는 브랜드는 역시 토렌스일 것이다. 소리 나는 오르골에서부터 시작한 토렌스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빈티지 중에는 TD124가 많은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았고, 80~90년대 320과 520의 인기는 정말 하늘을 찌를 듯했다. 오디오 세트를 장만하는데 기본 사양으로 중가 시스템에는 토렌스 320, 고가 시스템에는 520에 롱암(SME 3012) 매칭이 마치 공식처럼 통용되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정작 토렌스에서 나온 포노는 별로 없다. 2000년대 초반 세트로 나온 제품 중에 포노 앰프가 있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세트의 일부였고, 단품으로 나온 포노는 별로 기억나는 게 없다. 이번에 토렌스에서 포노 앰프를 출시했다니 반갑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다.

외관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로 전면의 크롬도금 패널에 'Thorens'라고 음각을 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전원스위치를 넣자 전면의 크롬 판에 음각된 토렌스라는 글자에서 청색의 은은한 불빛이 흘러나왔다. 디자인과 분위기, 그리고 토렌스라는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적절한 디자인 콘셉트라는 느낌을 주었다. 이 청색의 불빛은 뒷면의 앰비언스(Ambience) 노브를 돌려서 불빛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다. 양면에는 붉은색의 목재를 붙여서 고급스러움을 느끼게 했다. 상판은 알루미늄 재질에 역시 토렌스라고 음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플라스틱제로 주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

내부도 볼 겸 상판 재질도 궁금해서 상판을 열고 보니 플라스틱제가 아니라 알루미늄에 음각으로 토렌스라고 글자를 새긴 것이었다. 금형을 떠서 플라스틱으로 주조한 듯한 질감을 절삭을 통해서 구현한 것이다. 독일의 금속 가공 기술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내부는 IC를 이용한 포노답게 눈에 띌 만한 덩치 큰 부품은 없었다. 전원은 전용 전원부에서 양파 22V를 본체에 공급하게 설계되어 있다. 옆판에 사용한 나무는 디귿자형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상하판을 붙이게 설계했는데 아이디어가 참 독특하다. 상하 판을 고정

수입원 : 세기전자 (02)756-3331

- 가격 : 250만원
- RIAA : ±0.5dB(20Hz-20kHz)
- 게인 : 40dB(MM), 60dB(MC)
- 입출력단자 : 언밸런스 1계통
- 입력 임피던스 : 47㎏
- 크기(WHD) : 23.2x5x.17.4cm
- 무게 : 3kg
- 홈페이지 : www.thorens.com

하는 볼트가 조여지는 너트 구멍도 알루미늄에 그냥 나사를 낸 것이 아니라 철제 너트를 접합했다. 알루미늄에 암나사를 내면 일이 간단한지만 대신 몇 번 풀었다 조이면 나사산이 뭉개져 버린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제 너트를 알루미늄에 접합하는 세심함을 보였다. 역시 완벽을 추구하는 독일인들의 자세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단품 포노가 대부분 그렇듯이 토렌스의 TEP 302는 MC와 MM을 모두 지원한다. MC의 경우 다양한 임피던스 로딩을 지원하고, MM의 경우도 캐퍼시턴스를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MM에서 지원하는 캐퍼시턴스는 4단계로 조정할 수 있다. MC의 경우는 99Ω부터 1㎏까지 14단계로 임피던스 로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MM과 MC의 선택 캐퍼시턴스 선택, 로딩 임피던스 선택 등 모든 조작은 본체를 열지 않고 밑면에 있는 딥스위치를 조작함으로써 할 수 있게 했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배려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MM단은 40dB의 게인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15~20배 승압트랜스를 사용해서 적당한 볼륨을 얻을 수 있었다. MC의 경우 60dB의 게인이라 0.3mV 출력의 저출력 카트리지를 직접 구동하기에는 약간 게인이 부족한 듯했다.

토렌스에서 만든 포노 앰프의 소리는 과연 어떨까. 호기심이 앞섰지만 박스를 바로 열은 신품이기에 전원을 넣고 10시간 정도 충분히 달궈지도록 했다. 만듦새만 보아도 중급대의 포노는 아닐 거라고 짐작은 했지만 시청할 때까지도 토렌스의 TEP 302의 가격을 편집부에서 확인 못한 상태였다. 가격을 모르고 기기를 처음 듣는 것이기에 과연 얼마짜리 소리를 내줄까 하는 궁금증이 더해갔다. 필자의 포노와 공평한 비교를 위해서 ADC 승압을 거쳐서 MM단으로 시청했다. 캐퍼시턴스는 기본값인 15pF로 선택하고 시청을 준비했다. 첫 곡부터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슈퍼 아날로그 반인 셰링 연주의 '스페인 교향곡'을 걸었다. 알려진 대로 깊은 저음과 무대 크기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음반이다. 1악장 첫 부분의 깊은 저음 부분에서 대부분의 중급 포노는 저역의 깊이는 고사하고 양도 제대로 내주지 못하고 나가떨어진다. 기대와 호기심으로 첫 대면한 토렌스 TEP 302는 필자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했다. 충분히 깊고 무겁게 내려가는 저음이 필자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이었다. 혹시 프리의 볼륨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들은 것은 아닌가 싶어서 다시 확인하는 해프닝까지 벌였다. 확인을 위해서 필자의 레퍼런스인 포노로 바꾸어 시청을 했다. 다시 들어도 저역의 깊이와 무게감은 토렌스가 약간 앞서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무대의 크기는 상당히 커서 필자의 포노보다 크면 컸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었다. 특히 필자는 저역에 상당히 예민하고 집착하는 편인데 저역에 관한한 속 시원한 소리를 토렌스 TEP 302가 들려주었다. 쉐링의 독주 부분이 이어지면서 고역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는데, 고역을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처리했다. 음상은 핀 포인트로 조이면서 도드라지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핵을 중심으로 주위에 여운이 은은하게 묻어나면서 배경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처리했다. 필자의 포노와 비교한다면 고역 끝이 약간 둥글게 연마된 듯하고 초고역에서 살짝 말아서 아스라하게 처리했다. 전체적인 대역 밸런스가 저역에 무게중심을 둔 안정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었다.

필자의 포노와 자웅을 겨룬다면 고역과 이미징은 필자의 포노가 앞서고 저역과 무대의 크기는 토렌스의 포노가 앞섰다. 필자 포노와 자웅을 겨룰 정도의 포노라면 근래에는 서덜랜드의 PHD 정도였는데 토렌스의 TEP 302도 당당히 그 리스트에 낄 자격이 충분했다. 굳이 아쉬운 점을 찾는다면 이 정도 수준급의 포노라면 당연히 고가의 저출력 저임피던스의 카트리지와 어울릴 텐데 그러기에는 게인이 3~4dB 모자란다는 점이다. 중급대의 포노가 아닌 것은 무대와 저역 크기에서 이미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가격을 확인하니 실력에 비하면 좋은 가격이 생각이 들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오디오 가격을 생각하면 이 정도 가격에 이런 음악적 퀄리티라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포노로는 토렌스 제품을 처음 시청하는 셈인데 턴테이블의 명성을 유감없이 보여준 기분 좋은 만남이었다. A